“뒤바뀐 것을 뒤바뀐 줄 알지 못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⑥ 참마음

〈원문〉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하고 꿇어앉아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세존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성품을 잃어버리고 전도되게 일을 행한다 하시나이까? 원컨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의 진로의 때를 씻어주소서.”

여래께서 곧 금색의 팔을 세우시고 손을 아래로 내리시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나의 모다라 손을 보아라. 바로인가, 거꾸로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를 거꾸로라 하거니와 저는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라 한다면 어떤 것을 바로라 하겠느냐?”

“여래께서 팔을 세우시고 도라면 같은 손을 위로 허공을 가리키게 하면 바로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팔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이 뒤바뀐 것은 머리(위)와 꼬리(아래)가 바뀌었을 뿐이거늘,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잘못 보고 두 번 잘못 보느니라. 곧 알라. 네 몸과 여래의 청정 법신을 비교하여 말하면 여래의 몸은 정변지(正徧知)라 하고 너희들 몸은 성전도(性顚倒)라 하느니라. 네가 잘 살펴보라. 네 몸과 부처의 몸에서 전도라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말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멍하니 전도된 곳을 알지 못했다.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아난과 대중을 애민히 여겨 해조음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色)과 마음과 온갖 반연(攀緣)과 마음이 부리는 것과 반연 맺어지는 법들이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지 않더냐? 너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묘명진정(妙明眞精)한 묘심(妙心)으로 나타난 것이거늘 어찌하여 본래 묘하고 원묘한(圓妙)한 밝은 마음과 보명(寶明)한 묘성(妙性)을 잃어버리고 깨달음 속의 미혹한 것을 잘못 아느냐?”

〈강해〉 앞서 부처님은 바사닉왕에게 몸은 늙어가 나중에 죽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강물을 보는 견(見)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난이 듣고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참된 성품을 잃어버린 전도된 상태라 하셨느냐고 여쭈어 본다. 팔을 들어 바로인가 거꾸로인가 물어본 부처님은 여래의 법신은 정변지인데 중생의 몸은 성전도라 하여 깨달음 자체의 성품을 오인(誤認)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오(悟)의 미(迷)를 오인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깨달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미혹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참마음(眞心)으로 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이 참마음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색(色)과 마음 그리고 온갖 연(緣)과 마음이 부린 바(心所使)’가 오직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은 유심론의 대의(大意)를 천명한 말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은 말이다. 이런 내용을 두고 〈능엄경〉을 ‘소화엄경’이라고 불러왔다.

마음을 심왕(心王) 심소(心所)로 나누어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 심왕은 인식의 주체로 보고 듣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육식(六識)에서 칠식(七識), 팔식(八識)까지의 식 전부가 심왕이다. 심소(心所)는 심왕에 종속된 것으로, 심수(心數), 심소사(心所使)라고도 하는데 심왕이 사물을 인식할 때 따라 일어나는 좋다 싫다 하는 등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심왕의 지배를 받는다. 가령 눈으로 물체를 볼 때 빨갛다, 노랗다, 등의 색깔을 분별하는 것은 심소의 작용이다. 또 소연(所緣)이란 말은 보고 듣는 관계가 맺어질 때 대경(對境)으로 나타나는 유형·무형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육근(六根)이 상대하는 육진(六塵)의 전부가 소연(所緣)이 되는 것이다.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 하는데 유식설(唯識說)에서는 마음이 인식하므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비상비비상처해탈, 수능엄삼매 증득 과정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⑥ 자비관

생멸수행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은 각각의 선정의 단계에서 병행되는 해탈도이기 때문에 자비관의 단계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보살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살도 과정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은 수능엄삼매를 증득하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삼매를 통해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신다. 또한 천백억 화신불로서 여래장계 일법계에 정토불사를 행하신다. 진여수행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양신 배양의 진로이다. 둘째는 32진로 수행법이다.

△양신 배양이란 유(有)의 몸을 이룬 상태에서 원신분리를 통해 화신을 만드는 과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삼매경을 통해 양신 배양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양신 배양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셨고, 보살도 양신 배양을 이루지 못하면 진여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양신을 배양한 후에 천백억 화신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행절차가 보살도의 비상비비상처해탈이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는 아나함과부터 양신 배양을 이룰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진다. 본제관의 25원통 수행을 일왕래(一往來)해본 사람은 양신 배양을 할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진 것이다.

아나함과에서 양신 배양을 이룬 사람은 진여심과 생멸심이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생멸신과 진여신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몸을 진여신으로 삼고 배양된 양신을 생멸신으로 삼아서 심신(心身)이 합일된 상태로 그 이후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생멸신과 진여신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살도에 들어가면 난승지의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양신이 배양되지 않은 상태로 보살도에 들어가면 생멸신과 진여신이 서로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생멸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으로 돌아간다. 간혹 진여신과 생멸신이 분리되면서도 생멸신이 죽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살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이구지를 성취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경우는 생멸신과 진여신이 분리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신 배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라한들은 멸진정에 들어서 목적한 만큼의 수명을 유지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아라한들에게 대승도를 설하신 것은 진여출가를 위해서다. 진여출가를 하려면 먼저 생멸신과 진여신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열반에 들었다 말한다.

△32진로 수행이란 육체의 몸에 세워진 열두 개의 기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운용하는 방법이다. 32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운용하기 때문에 32진로 수행이라 한다. 32진로 수행을 한 사람은 몸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32상이 갖춰지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이 32진로 수행을 하게 되면 진여신에 32상이 갖추어진다. 보살의 위신력과 중생 제도의 역량이 32진로 수행과 양신 배양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여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은 열반상의 제도로부터 시작된다. 열반상(涅槃相)이란 초지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러서 그 이후의 수행을 저버린 것을 말한다. 밝은성품의 기쁨에 치우쳐서 진여출가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상을 일러서 50번째 마장이라 하셨다. 열반상을 벗어나면 열두 번째 자비관이 성취된 것이다.

환희지에서 벗어난 초지보살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경계가 그리움이다. 어디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일어나는 그리움 때문에 밝은 성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해탈지견으로 그리움을 비춰보면 그 원인이 스스로가 분리시킨 생멸심이란 것을 알게 된다. 종반야의 과정에서 진여심과 분리된 생멸심은 육체의 상태나 영혼으로 존재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⑥ 참모습의 본질

돈오돈수 · 돈오점수 논의 무의미

봄이 되면 나무들이 생기를 띠고 뿌리를 통해 가지마다 물을 전달하느라 바쁘다. 그때 가만히 나무 몸통을 보고 있으면 물이 올라가는 순환 때문에 짙은 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물기운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 가지마다 솟아오른 몽우리들이 통통하게 물이 오르면서 피어날 준비를 한다. 만약 한 나뭇가지가 죽어버리면 생생하던 몽우리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말라버린다.

두 갈래의 가지는 몽우리 안에 분명히 피어야 하는 잎사귀가 있었겠지만, 하나는 피고, 하나는 피지 못한 것이다. 몽우리가 피어난 것은 분명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고 그 가지가 물을 나를 수 있는 생기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을 몽우리까지 공급해야 하는 줄기가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느 쪽은 사실이고, 어느 쪽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피어난 것과 피지 못한 것으로 몽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진식(眞識) 자상(自相, 여래장식의 진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자각성취(自覺聖趣)의 입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같다. 그것이 피어나고 피어나지 않는 차이에 상관없이, 본래 머금고 있는 참모습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돈오(頓悟)와 점수(漸修)가 가지고 있는 여래장은 똑같지만, 그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은 인연의 법칙일 뿐, 어느 쪽을 옳고 그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남악 회양 선사는 마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심지법문(心地法門)을 듣는 것은 종자를 땅에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대의 인연이 맞았으므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볼 때, 돈오의 법은 누구에게도 드러날 수는 없지만, 혹 드러났다 하더라도 드러난 그 잎사귀가 그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가 아니라고 하여 몽우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지 못한다. 이처럼 ‘돈오의 법입니까? 점수의 법입니까?’라는 질문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는 치우친 관념일 뿐이다.

“이들은 점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네.”

관점과 관념의 논리라는 것이 현식(現識)을 파악하는 데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인 것은 맞지만, 관점과 관념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하여 의지하게 되면, 그 변화하는 순간에 수많은 번민이 나타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체 없는 허상에 휩싸이게 된다.

참모습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의 논리가 맞다거나 틀리다고 하는 것은 참모습의 본질을 무시하고 어느 특정한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인식해 보려는 잘못된 관념이다. 설사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법계일신(法界一身)에서 출발하여 사물의 본질을 나타낸다면, 분명 그것은 돈오돈수이다. 그러나 돈오점수라 하여 법계일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나[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지향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에 대한 정의가 같다면 두 가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지만, 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면 두 가지는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돈오돈수가 옳은 것인가, 돈오점수가 옳은 것인가는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와 법계일신에서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나’라는 명칭은 같은 글자이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 둘의 의미와 지칭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떤 개념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여 그것이 최고의 분석이 되고 다른 이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을 전달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